

선거인단 모집 경쟁, 죽음 불렀다

광주 대리모집 의혹 선관위 단속 현장서 60대 투신

계림동 주민센터 6층

광주의 한 전직 동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의 단속을 피하려다 6층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숨진 전직 동장은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대리모집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특히 선관위 단속 과정에서 '관·동원·금권선거'의 단서가 상당수 포착돼 최종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 사망자는 전직 동장=26일 오후 7시경 광주시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6층 옥상에서 조모(65) 전 계림1동장이 떨어져 숨졌다. 조씨는 이날 오후 6시10분께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대리등록 의혹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시·동구 선관위 직원들에게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4층 도서관을 나간 뒤 6층 건물 베란다에서 투신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이날 제보를 받고 현장을 덮쳐 이들이 갖고 있던 서류와 주민 이력과 전화번호·주소 등이 적힌 동구 세대인 명부, 금융거래 통장, 특정후보 홍보물 등을 압수한 뒤 이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던 중이었다.

경찰은 조씨의 정확한 사망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향후 선관위와 협의해 조사할 예정이다. 숨진 조씨는 지난 2008년 광주시 동구 계림1동장을 퇴임한 뒤 같은 해 동구청이 설립한 계림동 꿈나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관장직을 맡아왔다.

◇ 관·동원·금권 선거 의혹=선관위는 조씨 등 3명이 주민 명단을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대리등록해 주고, 명단을 모아준 사람에게 금품을 전달하려한 것으로 보고 숨진 조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구청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4층 도서관에서 특정후보의 선거인단 모집과 대리등록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동구청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26일 선관위의 단속을 피해 광주시 동구 계림동 주민센터 6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중태에 빠진 조모(65)씨가 광주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내 숨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장소 공공기관에서 동구청의 개입 없이는 대리등록이 불가하다는 점과 세대주 명부와 함께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통장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등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습명에게 각 1만 원씩 송금된 통장 3개가 발견돼 선거인단 모집과정에 이 돈이 사용됐는지 여부

도 주목된다. 선관위는 아울러 특정후보의 홍보물이 도서관 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해당 후보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 대리등록 적발 잇따라=지난 21일 현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한 조직적 선거인단 대리등록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데 이어 26일 광주 북부경찰도 대리등록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26일 광주 북구 모 장애인 시설에서 선거인

단 불법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 후보 측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미리 확보한 유권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선거인단 신청을 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권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장애인시설 관계자가 연루된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김대성·김경인기자 bigkim@kwangju.co.kr

민주, 내일부터 호남지역 공천 심사

이용섭·우윤근의원 등 74곳 공천 확정

호남지역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들에 대한 면접 등 공천 심사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발표 예정이었던 호남지역 공천 심사 결과도 3월초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간사인 백운우 의원은 "27일까지는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막바지 공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호남 지역은 28일부터 공천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앞서 지난 24일 74개 지역구에 대한 2차 공천심사 결

과,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된 선거구 31곳 가운데 27명이 공천을 받았으며 경선 지역으로 분류된 나머지 4곳도 현역의원이 모두 경선에 포함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단수 후보였던 광산 을 이용섭 의원과 광양시 우윤근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1~2차 공천 심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탈락하지 않아 민주통합당이 내세웠던 '개혁 공천'의 구호가 무색하게 됐다는 평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을 줄로 보는 사법부 재판 잘하는 인재보다 판결문 잘쓰는 사람만 키워”



이용훈 前대법원장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 강연

“사법부가 너무 권위적이고 국민을 줄(卒)로 보고 있어요. 법원에 오면 법관의 말씨부터 거만합니다. 법관들은 밤낮없이 일하는데 왜 이처럼 국민이 미워하는 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법부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법원장을 지낸 이용훈(70)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지난 2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으로 광주를 찾아 사법부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자신의 6년 임기에 대한 '자기 반성'을 털어냈다. 지난해 9월 제14대 대법원장직을 퇴임한 이후 이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법관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며 “재판을 받는 고객, 국민이 감동하도록 해야하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재판을 해야한다”

통렬한 법원 비판

임기 6년 자성도

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재직 시 민원실을 개설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려 애썼으며,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이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로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서글펐다고 전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이 역시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고 정리한 뒤 “퇴임한 이후 사법부 내에서도 저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었다”며 자신이 재직할 당시 문제점을 직접 거론했다.

그가 언급한 대법원장 시절의 ‘잘못’은 첫째 조직 내부의 전폭적인 동의를 받지 못한 개혁 조치에 조직원들의 피로감이 쌓여갔고 둘째 서열중심의 기존 인사 기준

을 깨지 못하고 답습하면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했으며, 셋째 시대 흐름을 정확히 읽지 못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재판을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판결문 잘 쓰는 사람만 양성했다”며 “이제부터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원, 국가도 미래를 예측하고 판결을 앞서 변신하고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기업, 법원, 정치인 등이 국민이 있기에 자신들이 있다는 자세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며 “사람이 사람이란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다”는 말을 기억해달라”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보성 출신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05년부터 6년간 제14대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선거구 확정, 지역구 늘리나

여야 '300석 합의' 진위공방 구공담 존폐 이번주 판가름

여야의 선거구 확정 작업이 이번 주에는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여 양·구·구·국·국·국 지역구 존폐 여부 등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애초 선거인명부 작성 작업 때문에 지난 17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했으나 이를 10여일 넘긴 26일 현재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는 지난 24일 오전 공직선거관계법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조정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의견집결이 이뤄지지 않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22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했다가 때문에 빠르면 27일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는 선거구 확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소집한 상황에서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정계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지난 25일 선관위의 '300석 중재안'에 대해 "유리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안으로 합의되면, 세종시 등에서 3석이 늘어나고 영·호남에서 각각 1석이 줄게 돼 양·구·국·국·국 지역구 폐지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 합의

한 내용이 없다”며 “300석 안은 다양한 안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의석을 302석으로 늘리거나 비례대표 3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경남 남해·하동 주민 1000여명은 지난 24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으며 양·구·국·국·국 주민들 200여명도 당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해 26일 오후에 상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님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혜택이 좋은 회원권 보다는 대우받는 회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모집기간: 2012년 1월 24일 ~ 3월 31일
- 클럽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하리 1219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p>VIP 정회원 - 모집인원: 11명</p> <p>▶ 입회금액: 3억 3,000만원</p> <p>▶ 회원특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생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월/1회 18홀 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월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365일 사용, 1월 1회) 	<p>하트 정회원 - 모집인원: 15명</p> <p>▶ 입회금액: 2억원</p> <p>▶ 회원특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지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120회 사용, 1월 1회)
<p>휴먼 정회원 - 모집인원: 12명</p> <p>▶ 입회금액: 1억 5,000만원</p> <p>▶ 회원특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90회 사용, 1월 1회) 	<p>해피 정회원 - 모집인원: 37명</p> <p>▶ 입회금액: 1억 1,000만원</p> <p>▶ 회원특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선택: C형 중 선택(1) C형)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60회 사용, 1월 1회) D형)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p>중증 / 평일 회원 - 모집인원: 48명</p> <p>▶ 입회금액: 3,300만원(선착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p> <p>▶ 회원특전: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선 할인</p>	

※ 계약시: 정회원인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원납시: 모든 특전
※ VIP·하트·휴먼·해피 정회원은 광주은행 당좌계좌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 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납입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 Fax 061)330-5009

hAPPINESS 해피니스CC www.happinesscc.com